

아깝다! 조선대 준우승

회장기핸드볼, 종료 5분 남기고 남성육 2분간 퇴장 속적 한체대에 17-18 1점차 역전패...패권 탈환 실패

조선대에겐 너무나 아쉬운 한판승부였다. 조선대가 제33회 연맹회장기전국대학핸드볼대회 결승에서 경기 종료 5분을 남기고 1점차 리드를 지키지 못한채 우승컵을 한체대에 넘겨주고 말았다. 1일 강원도 홍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남대부 결승에서 조선대는 대회 디펜딩 챔피언 한체대를 맞아 역전, 재역전을 거듭하는 접전 끝에 17-18(8-8, 9-10), 1점차로 석패했다. 지난 2006년 전국중별선수권대회 우승 이후 4년만에 전국대회 정상에 노렸던 조선대는 결국 꿈을 이루지

못한채 분투를 삼켜야 했다. 이날 승부처는 후반 25분. 경기 종료 5분을 남기고 뒤지던 경기를 16-15로 재역전 시켜놓은 조선대는 맹활약을 펼치던 주장 남성육이 무리한 수비로 2분간 퇴장을 당한 뒤 패널티 드로우를 허용, 16-16 동점이 되면서 순식간에 경기 흐름이 뒤집어지고 말았다. 한체대가 '남성육의 퇴장'을 틈타 연속 골을 성공시키며 16-18로 달아나자 조선대는 막판 재추격의 고삐를 당겼으나 1점만회하는데 그쳐 끝내 역전패의 고배를 들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이날 경기는 초반부터 대접전이였다. 체력을 앞세워 철벽수비를 펼쳤던 조선대는 예선전에서 이겼던 한체대에 초반 다소 밀렸으나 속공으로 추격하며 전반을 8-8로 마무리 했다. 후반들어서도 초반에 2점차까지 뒤지던 조선대는 남성육과 김현호의 뛰어난 공격력으로 몰고 물리는 승부를 펼쳤다. 후반 24분 김현호의 극적인 골로 16-15. 재역전에 성공한 조선대는 승리를 눈앞에 두는 듯 했으나 남성육 퇴장과 공격자 반칙 등 결정적인 파울로 다잡은 경기를 내주고 말았다. 막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한체대는 대회 2연패의 기쁨을 누렸다. 대회 최우수선수는 한국체대 김재일이 선정됐고, 김현철 한국체대 감독은 지도상을 받았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블로킹을 뚫고 1일 오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09-2010 V리그 플레이오프 3차전 GS칼텍스와 KT&G의 경기에서 KT&G 몬타노(왼쪽)가 상대 블로킹을 뚫고 공격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골프협회장배 2010춘계학생골프선수권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이 시상식 후 기념포즈를 취했다. <광주시골프협회 제공>

영광고 출신 서민영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

영광고 출신 서민영(용인대)이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 한국대표로 뽑혔다. 서민영은 최근 동해시 동해체육관에서 열린 제11회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남자 54kg급 결승에서 오진환(동아대)을 누르고 우승했다. 이로써 서민영은 오는 6월30일 스페인에서 열리는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에 한국대표로 출전하는 영예도 안았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박새움·조세미 남녀부 우승

〈대동고〉 〈비아중〉

광주시골프협회장배 학생골프

광주시골프협회장배 2010춘계학생골프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광주시골프협회(회장 안두일) 주최로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900건트리클럽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120명의 초·중·고교 선수들이 참가해 그간 뛰어난 기량을 보였다. 이번 대회에서 박새움(대동고·155타)과 조세미(비아중·151타)가 각각 남녀부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조세미는 대회 최저타로 최우수선수상의 영예도 안았다. 남자초등부 경기에선 위시현(비아중)이 저학년부, 김현성(영주초)이 고학년부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여자초등부에선 장연주(월봉초)가 우승했다. 또한 여자초등부에서 장연주에 이어 2위를 기록한 정주영(미산초)은 대회 둘째날

14번 홀에서 출인원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번 대회는 첫 날 강풍이 불고, 둘째 날 비가 내리는 등 최악의 기상 여건 속에서 참가 선수들이 평소의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아쉬움으로 남았다. 각 부문별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남자부=1위 박새움(대동고·155타), 2위 정주석(살레시오고·157타), 3위 조경일(서강고·161타) ▲여자부=1위 조세미(비아중·151타), 2위 하민송(비아중·157타), 3위 전수민(살레시오고·160타) ▲남자초등부=1위 위시현(비아중·180타), 2위 김민규(광동초·181타), 3위 나소룡(봉선초·188타) ▲남자초등 고학년부=1위 김현성(영주초·170타), 2위 김영인(미산초·174타), 3위 장태형(동운초·179타) ▲여자초등부=1위 장연주(월봉초·180타), 2위 정주영(미산초·186타), 3위 김우정(살레시오초·188타)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이경배씨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신입 사무처장에 이경배(48)씨가 취임했다. 지난 2007년부터 장애인체육회에서 근무해 오던 이 처장은 16개 시·도 장애인체육회에선 처음으로 평직원에서 사무처장까지 오른 주인공이다. 지체 1급인 이 처장은 지난 2002년 부산장애인아시아인간인 출신 등 10여년간 본보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다. 이 처장은 "앞으로 광주장애인체육의 위상 제고를 위해 우수선수발굴과 실업팀 창단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KT&G 5년만에 챔피언 진출

프로배구 '엄마용병' 몬타노 맹활약 GS칼텍스에 완승

'엄마 용병' 몬타노가 맹활약한 KT&G가 5년만에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했다. KT&G는 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NH농협 2009-2010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플레이오프(5전3선승제) 3차전에서 GS칼텍스에 3-0(25-19 25-23 25-19)으로 완승했다. 플레이오프에서 3전 전승을 거둔 KT&G

(정규리그 2위)는 오는 7일부터 시작하는 챔피언결정전(7전4선승제)에서 정규리그 1위 현대건설과 맞붙는다. KT&G는 프로배구 출범 첫해인 2005시즌에 챔피언에 등극하고서 다섯 시즌 만에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해 정상에 노린다. KT&G는 특히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3경기 내내 한 세트도 내주지 않으면서 2007-

2008 시즌 GS칼텍스와 플레이오프에서 2전전패를 당한 아픔도 씻었다. 플레이오프 1, 2차전에서 매 경기 60%가 넘는 높은 공격 성공률로 30점 이상을 올린 몬타노는 이날도 거침없었다. 몬타노는 54.5%의 공격 성공률에 양팀에서 가장 많은 31점을 사냥했다. KT&G는 또 세터 김사니의 자능적인 볼 배부에 힘입어 레프트 이연주(9점)와 백목화(7점), 센터 장소연(6점)도 공격에 힘을 보탤다. /연합뉴스

김지현·남상아 '금빛 물살'

〈광주체고〉 〈장원초〉

제주한라배전국수영대회

김지현(광주체고)과 남상아(장원초)가 제5회 제주한라배전국수영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금빛역명을 펼쳤다. 김지현은 1일 제주실내수영장에서 열린 대회 여고부 배영 100m 결승에서 1분03초59를 기록, 함찬미(강원북원고·1분03초79)·류현지(서울정신여고·1분04초70)를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지현의 이날 기록은 지난해 수립된 대회신기록(1분03초60)을 0.01초 앞당겼다. 남상아는 여초부 평영 100m에서 1분24초08의 기록으로 대회신기록과 함께 금메달을 목에 거는 기쁨을 누렸다. 접영 경기에선 전이연(광주체고)이 100m(1분03초90)와 200m(2분20초30)에서 3위로 끝낸, 2개의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중부에선 우혁재(광주체육중)가 평영 200m에서 2분11초80으로 3위를 기록했다. /서승원기자 swseo@

프로배구 3월 MVP

석진욱·몬타노 선정

프로배구 3월 최우수선수(MVP)에 '돌도사' 석진욱(34·삼성화재)과 '엄마 용병' 마텔리아네 몬타노(27·KT&G)가 뽑혔다. 석진욱은 6라운드 수비 부문에서 세트당 7.29개를 성공시켜 리베로를 제외한 선수 중 1위였고 시간차 공격 성공률 73.91%를 기록하는 등 공수에서 살림꾼 역할을 해내며 삼성화재가 정규리그 1위를 확정하는 데 앞장섰다. 삼성화재는 가빈, 최태웅에 이어 세 번째 월간 MVP를 배출했다. 몬타노는 팀 동료 김사니를 제치고 수상했다. 몬타노는 6라운드 득점(124점), 공격 성공률(46.58%) 1위를 차지했고 플레이오프에서도 맹위를 떨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름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운명(運命) 타고난 사주(四柱) 운 비탈 수 없으므로 이름=운명(運命) 직접 개명하여 운명(運命) 인생을 운진하는 것을 개척하십시오. 社団法人 星谷傳統文化研究會. 0621-227-2356, 010-7671-5623

남성 헤어 가능장학 大山프리모남녀가발. 가발. 초슬림!! 각 품 50만원~. 귀하의 품위와 안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대표전화: 062-673-5858, 673-4822